

대순교자 겸 존 사도 성 테클라 (9월 24일 축일/9월 20일 강론)

Ομιλία 20.9.2020 Αγία Θέκλα

사도 시대의 첫 여성 순교자로서 놀라운 정도로 훌륭했던 성 테클라를 우리 정교회는 9월 24일에 기념하면서 축일로 지냅니다.

성녀는 이코니오 지역(현재 Konya)에서 귀족 가문의 이교도 부모 사이에서 서기 28년에 태어났습니다. 46년 가을에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추방되었던 사도 바울로와 사도 바르나바는 이코니오에 도착했을 때, 테클라는 18세였습니다. 그녀의 고귀한 영혼은 우상 숭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녀는 이것을 사도 바울로의 가르침에서 발견했습니다.

열정적인 사도 바울로는 이코니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광신도 유대인들은 그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로는 협조자 오네시포로스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중에는 테클라도 있었습니다. 성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들었고, 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의로 십자가에 오르시어 숨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큰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성녀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성녀는 사도 바울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도 온 삶을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코니오를 떠난 후 테클라는 열정적인 믿음과 열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다 체포되어 고향인 이코니오에서 첫 번째로 순교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화형에 처해지도록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의 세 청년이 불화덕에서 살아났던 것처럼 성녀도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성녀가 불길에 휩싸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천둥과 번개

가 치면서 성녀 주변에 있던 불이 꺼졌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고 화형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달아나 버렸습니다. 성 테클라는 불길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서 나왔습니다.

성녀는 용감하게도 피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했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인도했지만 두 번째로 순교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성녀는 오늘날까지 보존된 안티오키아의 원형 극장에 맹수의 먹잇감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자 굴에서 살아남았던 다니엘의 경우처럼 사자나 다른 맹수도 성녀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맹수를 대하고 죽음을 물리치도록 신비스러운 힘으로 성녀를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성 테클라는 사도 바울로의 선교 여행에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에 머물면서 이교도들을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라는 사도 바울로의 권고에 성녀는 순종했습니다.

성 테클라는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이코니오 남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킬리키아(Cilicia)의 셀레브키아(현재 Silifke)에 도착하여 칼라마스(Kalamas) 산의 동굴을 거처로 삼아 삶을 마감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성녀는 기도와 영적 수련, 복음 전파에 전념했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성녀의 명성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거나 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성녀의 나이 90세에 주님으로부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늘 왕국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셀레브키아의 그리스도 신자들은 성녀가 묻힌 동굴 위에 그녀에게 헌정하는 성당을 지었습니다.

성 테클라가 평생에 걸쳐 행한 기적은 성녀가 안식 후에는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제노 황제 (5

세기)도 성녀의 기적에 의해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황제는 감사한 마음으로 성 테클라를 기리기 위해 장엄한 성당을 지었습니다. 황제는 또한 성녀가 영적 수련을 하면서 은둔생활을 했던 곳에 수도원도 세웠습니다. 이 수도원은 비잔틴 제국의 모든 지역에서 찾아온 신자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 테클라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순교 당할 위기로부터 살아남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선교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존 사도직을 받은 소수의 여인 중에 한 명이 된 성녀는 교회에서 영예로운 명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녀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은둔 수도자의 삶을 선택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첫 번째 그리스도인 여성 은둔자이자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녀가 수련했던 동굴은 첫 번째 수녀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강렬한 믿음으로 “맹렬한 불을 꺾고” 그리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니”(히브리서 11:33-34) 성녀는 첫 번째 여자 순교자로 추앙되었습니다.

성녀가 첫 여성 순교자가 된 배경으로는 첫째, 당연히 이토록 큰 영광에 도달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둘째로는 위대한 사도가 전해주시는 말씀과 모범으로 영감을 받아 성녀는 깊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헌신한 성녀가 열매 맺은 결과입니다. 성녀의 영혼에 사도의 가르침과 모범이 성녀의 삶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0)

형제 여러분, 존 사도이며 첫 여성 은둔자이고 영적 투쟁자였던 테클라의 빛나는 모범적인 삶에

서 영감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 영혼의 신랑이신 주님께서 수많은 방법으로 표현해 주시는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참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여 한 몸이 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은 그 어떤 세상의 기쁨보다도 고귀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